

LG화학, 나노기술 개발 적극 추진

나노기술 접목된 다양한 제품 전시 ... 나노소재 관련기업 참여 많아

8월24일부터 27일까지 COEX 대서양홀에서 <나노코리아 2004>가 “나노기술 도전, 현재와 미래” 부제로 전시회와 심포지엄, R&DB 등 3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전시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7개국의 76개 관련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나노분석·측정기기, 환경 및 에너지 등의 5개 분야 제품을 전시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 등 삼성의 3사와 LG화학, LG전자,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또 나노소재 및 소자 관련기업으로 일진나노텍, 나노텍, WB신소재, 나노기술, 나노신소재, 석경AT, 대주전자재료 등이 참가했다.

삼성SDI는 대형 유기EL 디스플레이와 나노파우더, 플렉시블 솔라 셀(Flexible Solar Cell) 등을, 삼성전자는 MRAM, PRAM 등 차세대 메모리와 탄소나노튜브 메모리 등 나노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메모리를 전시했다.

LG전자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RFMEMS 디바이스와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나노포토닉스 디바이스 등을 소개하면서 나노입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전제품을 전시했고, LG화학은 나노코팅, 연료전지, 반도체 절연막, 나노복합소재 등을 출품했다.

일진나노텍은 탄소나노튜브 파우더 및 램프를, 석경AT는 나노입자 구형실리카, 무기계 산화물 파우더 등을, 나노기술은 전기폭발법을 이용한 나노분말장치와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을, 나노텍은 전기·전자소재용 고농도 나노실버 콜로이드 등을 전시했다.

한편, 기술개발 투자설명회에서 대주전자재료의 임무현 대표는 <광촉매 및 연료전지용 Pt촉매 소개> 제목으로 발표했고, LG생활건강의 박승규 책임연구원은 <속이 빈 구형의 나노탄소(Carbon Nano Hollow Sphere) 소개> 제목의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8/30>